

日帝下 韓國新聞의 共產主義 受容에 관한 研究*(其三)

劉 載 天

I. 序 論

IV. 研究結果

II. 研究方法

V. 結 論

III. 日帝下 共產主義運動略史

I. 序 論

共產主義는 民族主義 및 民主主義와 함께 우리의 現代史를 지배해온 이데올로기의 하나이다. 大韓帝國이 日帝에 併合되어 植民地가 된 뒤, 이르크츠크, 블라디보스톡 및 上海 等地에 망명하여 조국의 독립운동을 전개하던 韓國人들 사이에 共產主義者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이들은 특히 1910년 10월혁명에 의해 러시아에 共產主義政權이 수립된 후 활발한 共產主義運動을 전개할 태세를 갖추게 된다. 한편 日本에 유학한 학생들 사이에 당시 日本을 풍미하던 共產主義 이념과 共產主義運動에 심취하거나 동조하는 집단이 형성되었다. 이들은 모두 韓國內에 共產主義運動組織을 만들 것을 시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日帝의 武斷統治로 인해 國內에서의 조직활동은 여의치 않았다.

그런 가운데 日帝는 3·1운동 이후 韓國人에 대한 최유책으로 植民統治政策을 武斷統治에서 이른바 文化統治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國內에서

* 本研究은 1988年度 文教部 共產圈研究基金을 받아 西江大 東亞研究所에서 주관하여 이루어진 것임.

東亞日報 등 民族言論이 등장하게 되며, 각종 思想運動이 활기차게 전개되기 시작했다. 이 때의 思想運動은 民族主義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으나 당시의 진보적 사상인 社會主義의 성격을 지닌 운동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日本 유학생 중심의 共產主義者들이 國內에 들어와 社會主義思想運動團體를 조직하게 되며, 러시아와 上海 等地의 共產主義運動家들도 共產黨조직을 위해 속속 國內에 잠입함으로써 共產主義運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에 이른다. 따라서 國內에서 共產主義의 受容은 이상과 같은 움직임에 의해 1920년대 초기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시작된 共產主義의 受容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몇가지 受容통로를 지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思想運動團體들과 共產主義를 지향하는 社會運動組織을 통해 受容되었다. 여기에는 朝鮮共產黨의 조직과 활동이 포함된다.

둘째, 해외로부터 들어온 각종 출판물과 잡지 및 팜플렛을 통해 受容되었다. 그러나 출판물들은 日本에서 간행된 것이 주류를 이루며, 정기간행물의 경우 1920년대 전후에 러시아語로 인쇄된 「콤소몰스카야 뿌라우다」, 「불세비키」, 「크라스노예 즈나냐」, 「티토케안스카야 즈비에즈다」 등이 들어 왔으나 언어장애와 日帝植民統治당국의 검열과 제재로 말미암아 극히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전달되는 것에 불과했다. 따라서 밀수입된 문서들에 의한 외부의 영향은 초기에 한정된 것이었다.

셋째, 國內의 共產主義思想團體나 朝鮮共產黨, 또는 社會運動團體들의 기관지를 통해 受容되었다. 그러나 組織의 성격상 地下出版物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던 이유와, 경찰의 부단하고도 강력한 단속 때문에 대부분의 간행물들은 大衆化될 수 없었다.

넷째, 일반잡지와 일간신문 등의 정기간행물을 통해 受容되었다.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 간행되고 있던 잡지와 신문들은 3·1 운동이후의 文化統治에 따라 적어도 19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나기 전까지 言論에 대한 日帝

植民統治당국의 통제가 완화되어 있었음에 의해 제한된 범위내에서나마 共產主義를 공개적으로 소개할 수 있었다. 따라서 日帝下에서 일반 대중이 共產主義를 합법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受容할 수 있었던 통로는 이들 공공매체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日帝植民統治下에서의 共產主義 受容에 있어 중요한 구실을 담당했던 것은 신문과 잡지 등이라고 해도 지나친 평가는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本研究는 日帝下의 우리나라 大衆매체들이 共產主義를 얼마나, 어떻게 受容했는가를 밝히려는 데 목적을 둔 것이다.

II. 研究 方法

本 研究는 日帝植民統治下에서 우리나라신문을 통해 受容된 共產主義에 대한 경향분석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東亞日報와 朝鮮日報에 실린 論說, 時評, 解說 및 企劃物 가운데서 共產主義(社會主義)를 다룬 기사를 대상으로 內容分析方法을 적용하여 연구하였다. 연구의 목적이 경향분석이었으므로 量的分析을 행했다. 분석대상시기는 1920년에서 1932년으로 삼았다. 그것은 1931년의 만주사변이후 日帝의 언론정책은 또 다시 엄격한 통제로 회귀했던 까닭에 신문에서 共產主義관계 기사를 거의 게재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思想統制와 社會運動에 대한 철저한 탄압으로 인해 1932년 이후 國內에서의 共產主義運動은 그 명맥이 거의 끊어지다시피되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內容分析에 있어 기사의 제목을 분석의 단위로 삼았으며, 분석의 범주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 新聞의 범주: 1. 東亞日報, 2. 朝鮮日報

나. 집필자의 소속단체별 범주: 1. 서울靑年會, 2. 北風會, 3. 火曜會, 4. 上海派 高麗共產黨, 5. 火曜會系 朝鮮共產黨, 6. M.L.系 朝鮮共產黨, 7. 朝鮮共濟會, 8. 카프, 9. 기타

다. 주제별 범주 : 1. 유물론, 2. 변증법, 3. 헤겔철학, 4. 유물사관, 5. 노동문제, 6. 계급론, 7. 문화론(상부구조), 8. 자본의 분석, 9. 공산주의(사회주의) 소개, 10. 운동론, 11. 기타

라. (운동론의 경우)운동별 범주

A. 운동의 유형 : 1. 共產黨운동, 2. 노동운동, 3. 농민운동, 4. 여성운동, 5. 문예운동, 6. 종교운동, 7. 청년운동, 8. 학생운동, 9. 민중운동, 10. 혁명, 11. 일반사회운동, 12. 기타

B. 기사의 형태 : 1. 일반론, 2. 구체론(사례와 실천)

C. 운동이 발생한 국가 : 1. 소련, 2. 중국, 3. 인도, 4. 일본, 5. 기타 공산국가, 6. 歐美, 7. 한국, 8. 기타

마. 기타 : 1. 무기명 기사, 2. 기명 기사

이상과 같은 범주에 따라 분석된 기사의 계산단위는 기사의 연재회수에 상관없이 기사 1편을 하나의 단위로 삼기로 정했다. 또한 하나의 기사 가운데 여러 주제가 포함될 수 있으나 분석단위를 제목으로 규정하므로써 분석상의 혼란을 배제키로 했다.

Ⅲ. 日帝下共產主義略史¹⁾

1. 좌익운동의 발전과정

1919년의 3·1운동으로부터 1925년 4월 17일에 제1차당 혹은 金在鳳黨이라 불리는 朝鮮共產黨이 結黨되기까지 國內에서의 共產主義運動의 발전과정을 金俊燁, 金昌順 등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즉 1919년

1)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은 문헌을 참고로 정리한 것이다. 가) 金俊燁, 金昌順 共著, 韓國共產主義運動史, 〈第2卷〉, 高大 亞細亞問題研究所, 1969, 나) Dae-Sook Suh, The Korean Communist Movement, 1918~1948,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J. 1967. 다) Robert A. Scalapino & Chong-Sik Lee, Communism in Korea, Part 1: The Movement,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and Los Angeles: Calif., 1972.

에서 1921년까지는 점진적 및 급진적 민족주의운동의 前進과 민족주의운동 안에서의 社會主義경향의 출현을 보게되며, 1922년에서 1923년 동안에는 민족주의운동에서 사회주의운동이 분리되고, 사회주의운동안에서 小分派가 발생하게 된다. 1924년에서 1925년까지의 시기에는 민족주의운동과 사회주의운동 사이에 대립이 노골화되고, 관념적 사회주의자들이 조직의 정비를 시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좌익운동의 발전과정을 각 운동별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가. 思想運動

3·1운동이후에 등장했던 여러 思想運動團體들 가운데서 共產主義運動의 전개과정에서 중요한 구실을 수행했던 단체들을 중심으로 이 시기의 共產主義思想運動을 살펴보기로 한다.

(1) 同友會선언

國內에 社會主義思想, 마르크스主義를 처음으로 전파한 것은 日本유학생층이었다. 3·1운동을 전후하여 이들, 특히 東京유학생들 가운데 다수는 日本에서 발흥하는 좌익운동에 자극되어 종래와 같은 단순한 民族主義運動만으로는 民族解放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관념을 가지고 共產主義運動에 공명하게 되었다. 이러한 뜻을 가진 東京유학생들의 단체였던 「苦學生同友會」 간부들은 1922년 1월에 서울로 돌아와 같은 해 2월 4일자 朝鮮日報에 「全國勞動者諸君에게 檄함」이라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에서 그들은 “우리 同友會는 日本의 주요 사상단체 및 노동단체와 제휴하여 노동대학의 설립, 잡지 「同友」의 발행 등으로 노동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이제는 苦學生 및 노동자의 救濟기관임을 버리고 계급투쟁의 직접적 행동기관임을 선언함”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방점은 필자) 이같은 同友會의 선언은 國內의 젊은 지식층과 학생들에게 큰 사상적 충격을 주었다.

(2) 「無產者同盟會」(1922년 3월 31일 창립)

「無產者同盟會」에 앞서 1922년 1월 19일에 無產者解放을 목적으로한 思想運動團體인 「無產者同志會」가 결성되었다. 이 단체는 無產者解放을

추구하기 위한 國內 思想團體의 嚆矢가 된다. 이 「無產者同志會」의 간부들은 유지간담회 형식으로 화합을 열어 사회운동의 추세 및 진행방침 등을 연구검토하고, 각 단체의 성질에 적응한 운동의 분화를 결의한다. 이것은 후일 思想・勞動・靑年運動 등의 부문별 운동의 진행을 초래하게 된다. 「無產者同志會」의 간담회 구성원들은 「朝鮮勞動共濟會」, 「서울靑年會」에 들어가서 동일목적의 각개 운동을 조직하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운동방침, 즉 기성의 단체에 침투하여 부문별 활동을 의식하게 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그러던 가운데 「無產者同志會」는 발전적으로 해체되어 「無產者同盟會」를 창립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新人同盟會」(1922년 2월 20일 창립)도 발전적으로 해소한 뒤 참여하였다.

(3) 「北風會」(1924년 11월 25일 창립)

1923년 1월 15일 日本 東京에서 유학생들에 의해 조직된 社會主義思想團體였던 「北星會」(1925년 1월 3일에 「一月會」로 개칭)의 國內조직으로 창립된 단체로서, 金若水, 金鍾範, 馬鳴(鄭宇洪, 鄭宇鎭), 鄭雲海, 南廷哲, 徐廷禧, 朴昌漢, 朴世熙, 辛容箕(辛鐵), 宋奉瑀, 李浩外 13인이 주동이 되어 결성되었다. 이 「北風會」의 주도 세력은 후일 朝鮮共產主義運動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北風會」는 창립과 동시에 코민테른의 브라디보스톡 주독기관(오르그뷰로) 책임자 인데르슨에게 韓國유일의 社會主義者共同戰線임을 보고하였으나 승인을 받지 못했다.

(4) 「火曜會」(1923년 7월 7일 창설)

洪命熹 등이 「新思想研究會」를 조직하여 출발한 뒤 1924년 11월 19일에 「火曜會」로 개칭했다. 이 때의 회원수는 60여명으로 東京에 있던 社會主義思想家和 理論家들이 대부분 가입했으며, 上海에서 돌아온 朴憲永, 林元根, 金泰淵(金丹治), 趙東祐 및 朝鮮共產黨 창당주역들인 金燦, 洪增植 등이 모두 「火曜會」의 주요 구성원이었다. 이 단체는 朝鮮共產黨 창립의 主謀團體로 구실을 했다.

(5) 「社會主義者同盟」(1924년 12월 6일 창립)

「서울靑年會」의 별동조직으로 사상단체의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 창립되었다. 그것은 「서울靑年會」가 「北風會」나 「火曜會」에 비견되는 사상단체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었다. 이 단체는 “농민단체, 노동단체를 결합하고, 단체위력에 의한 지주 및 자본가에 대하여 노동계급사회의 실현을 기한다”는 것을 내세웠다.

이들 다섯개 사상단체 이외에도 여러 분파의 크고 작은 단체들이 많았으나 이들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생략하기로 한다. 이 당시 사상운동단체의 종류와 계보는 <표 1>과 같다.²⁾

과. 勞農運動

3.1 운동 이후 등장했던 주요 勞農運動團體들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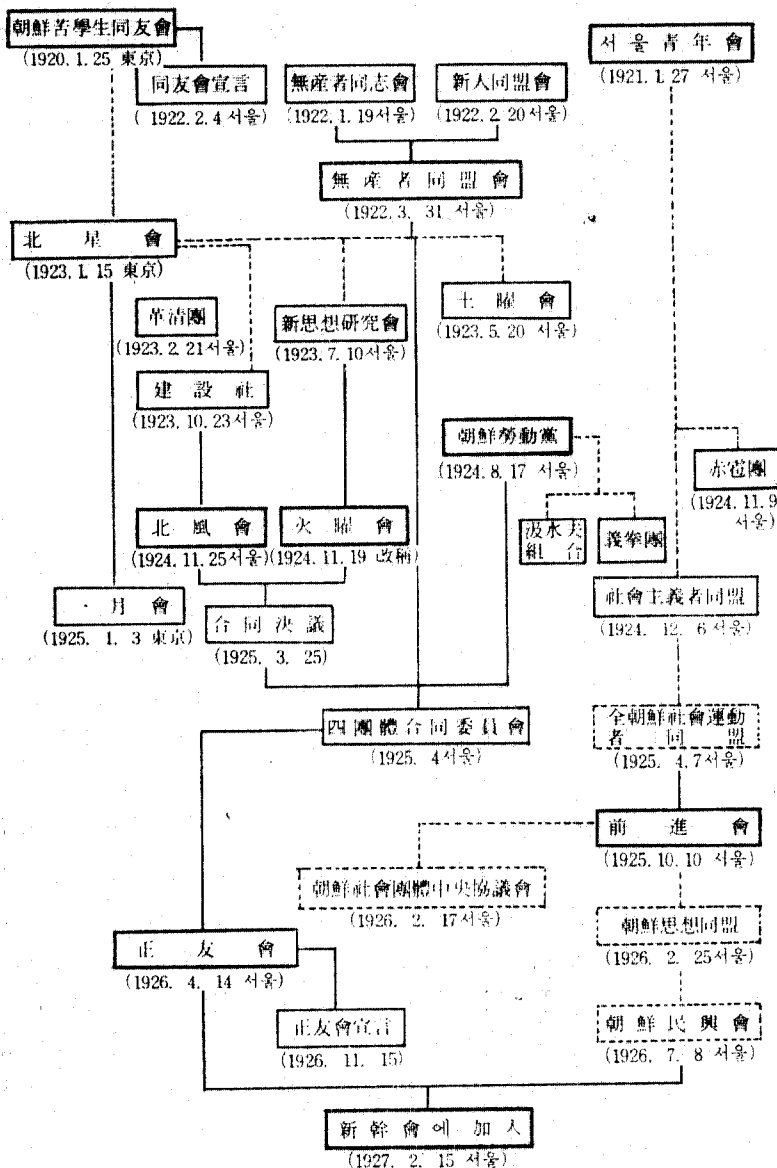
(1) 「朝鮮勞動共濟會」(1920년 4월 11일 창립)

「朝鮮勞動共濟會」는 1. 朝鮮勞動社會의 知識啓發, 1. 저축의 장려, 1. 品性の 향상, 1. 衛生思想의 향상, 1. 患難救濟 및 직업의 소개, 1. 一般 勞農狀況의 調査 등의 강령을 내세우고 창립되었다. 會의 임원중에는 勞動者出身인 車今奉을 비롯해 申伯雨, 金明植 등 사회주의적 의식분자도 없지는 않았으나 대다수는 名利家, 實業家, 의사, 변호사 및 紳商들이었다. 그런 까닭으로 「勞動共濟會」는 진정한 노동단체, 사회주의운동단체로 보여지지 않았다. 당시 東亞日報를 중심으로한 民族主義진영은 「朝鮮勞動共濟會」의 취지들을 지지했으며 勞資協調主義에 대해 예찬했다. 共濟會가 결성되자 左右翼의 論客들은 노동운동에 대한 論陣을 띄고 勞動神聖視의 계몽주의적, 노동관과 노동조합의 의의, 국제노동운동의 현황소개 등에 힘썼다. 1921년 7월 15일에는 「朝鮮勞動共濟會」 시설부에서 서울에 소비조합상점을 설치한 바,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소비조합이다. 또한 「勞動共濟會」는 1920년 8월에 기관지 「共濟」를 창간, 唯物史觀, 계급의식, 자본론, 노동가치설 등을 게재했다. 이 때 이 會는 좌파가 장악하고 있었다. 즉 勞資協調主義者들이 쇠퇴한 것이다. 또한 1922년 4월 3일과 4일

2) 金俊準, 金昌順, 같은 책, p. 56에서 引用.

〈表 1〉

思想運動團體 一覽表



에 걸쳐 열렸던 제 3회 대회에서는 小作人組合의 결성을 결의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小作人は 단결하라”는 선언을 했다. 이같은 결의와 선언은 소작쟁의가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던 마당에서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의 병행을 강조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사실상 당시의 상황은 농민운동을 노동운동의 아래에 두거나 경시했으며, 소작쟁의를 노동운동의 일익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共濟會」의 이같은 결정은 그 때의 사회운동계에 큰 충격을 준 것이었다. 그런 가운데 「朝鮮勞動共濟會」는 1922년 10월 15일에 임시총회를 열고 諸勞動團體의 연합체로 새출발하기 위해 해산을 결의하게 된다. 그러나 尹德炳일파는 「朝鮮勞動聯盟會」로 새 출발하게 되며, 車今奉일파는 그대로 共濟會를 고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朝鮮勞動聯盟會」는 후일 北風會와 火曜會의 세력기반이 되고, 車今奉일파의 「共濟會」는 서울青年會의 영향 아래 있게 되었다.

(2) 「朝鮮勞農總同盟」(1924년 4월 18일 창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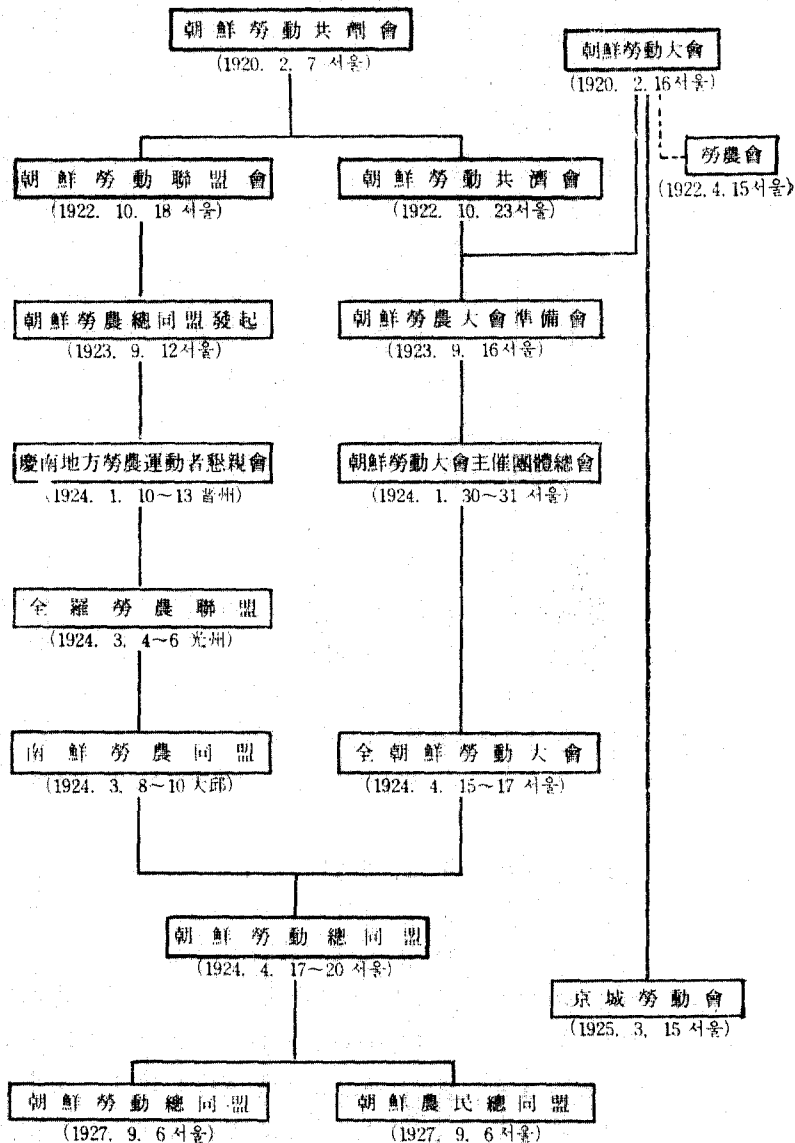
「朝鮮勞農總同盟」은 1924년 4월 17일에 발기회를 가진 뒤 18일에 창립대회를 개최했으며, 4월 19일에 총동맹규칙을 통과시키고, 집행부를 구성했다. 4월 20일에는 임시대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은 강령초안을 작성했다. 1. 吾人は 勞農階級을 해방하여 완전한 新社會의 실현을 목적인다. 1. 吾人は 단결의 위력으로서 최후의 승리를 얻는 데까지 철저히 資本階級과 투쟁한다. 1. 吾人は 勞農계급의 현생활에 비추어 복리증진 및 경제적 향상을 도모한다.

「勞農總同盟」의 활동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바는 4월 20일의 임시대회에서 東亞日報를 勞農運動의 「妨害者」로 규정하고, 同紙의 배척 및 非買同盟을 결의했다는 점이라 하겠다. 東亞日報社는 처음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문제시하지 않는다는 신중한 태도를 취했으나 2일 뒤에 在京重役 全員の 인책사직을 단행했다. 이 「朝鮮勞農總同盟」의 창설은 단일 전선형성의 요청에 따른 勞農運動의 統合이라는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이들 두 노동운동단체 이외의 단체와 그들의 계보는 <표 2>에 제시된 것

〈表 2〉

勞農運動團體 一覽表



과 같다.³⁾ 또한 이 당시의 노동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표 3>과 <표 4>와 <표 5>의 勞動爭議발생상황 및 小作爭議발생상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⁴⁾

다. 靑年運動

光武 11年(1907年) 법률 제 2호(1907.7.27)「保安法」에 의해 한국인의 집회와 결사를 통제해 오다가 1910년 8월 警令 제 3호「集會取締令」에 의해 서울에서는 한국인·일본인은 물론 기타 외국인할 것 없이 일체의 정치적 집회가 금지되었으며, 이같은 상황은 전국에 걸쳐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3·1운동후 제한된 범위내에서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용인됨에 따라 1920년과 1922년 사이에 靑年團體의 수는 1920년에 251개, 1921년에 446

<表 3>

勞動爭議發生 狀況表(1921~1925)

年次 件數人員 道別	1921		1922		1923		1924		1925	
	件數	人員	件數	人員	件數	人員	件數	人員	件數	人員
京 畿	11	742	25	554	42	2,073	21	1,924	22	2,145
忠 北	—	—	—	—	—	—	—	—	1	35
忠 南	2	159	2	46	—	—	2	39	—	—
全 北	1	50	1	205	5	383	6	3,980	3	97
全 南	1	230	—	—	1	160	1	115	6	529
慶 北	4	261	3	106	1	25	4	389	1	465
慶 南	7	1,069	6	421	3	1,960	3	302	3	334
黃 海	1	55	2	91	1	120	—	—	1	78
平 南	2	102	1	40	6	680	1	150	6	1,049
平 北	2	320	—	—	1	69	1	46	4	369
江 原	—	—	2	96	4	60	2	140	4	314
咸 南	1	200	3	232	5	361	2	580	2	205
咸 北	4	233	1	18	3	150	2	86	2	80
計	36	3,430	46	1,809	72	6,041	45	6,751	55	5,700

資料：朝鮮總督府警務局「最近に於ける朝鮮治安狀況」, 1938, pp. 85~86.

3) 앞의 책, p. 100에서 引用

4) 앞의 책, p. 58, p. 60에서 再引用

〈表 4〉

小作爭議發生 狀況表(1921~1925)

年次 件數人員 道別	1921		1922		1923		1924		1925	
	件數	人員	件數	人員	件數	人員	件數	人員	件數	人員
京畿	2	56	2	5	3	331	1	151	1	21
忠北	1	14	2	2,455	10	2,422	2	98	—	—
忠南	2	84	4	143	2	78	8	226	—	—
全北	7	801	2	53	6	293	1	40	—	—
全南	4	115	—	—	24	1,620	59	2,990	4	1,514
慶北	7	1,641	3	134	3	71	8	511	—	—
慶南	3	247	4	168	103	3,104	63	536	1	70
黃海	—	—	3	380	7	654	18	2,141	1	460
平南	—	—	1	32	12	278	2	174	—	—
平北	—	—	—	—	4	10	—	—	2	214
江原	1	9	—	—	2	199	2	62	1	50
咸南	—	—	3	169	—	—	—	—	1	317
咸北	—	—	—	—	—	—	—	—	—	—
計	27	2,967	24	3,539	176	9,060	164	6,924	11	2,646

資料：朝鮮總督府警務局「最近に於ける朝鮮治安狀況」1938, p. 97.

〈表 5〉

農民團體 및 小作爭議比較

區 分	1920	1921	1922	1923	1924	1925
農民團體	1	3	23	107	112	126
小作爭議	15	27	24	176	104	11

資料：朝鮮總督府警務局保安課「高等警察報」第2號, p. 74.

개, 1922년에 488개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따라서 각종 청년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 같은 청년운동단체 가운데서 共產主義運動과 연관된 주요단체 및 운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朝鮮青年會聯合會」(1920년 12월 2일 창립)

1920년 6월 28일에 「朝鮮青年會聯合會期成會」를 발기하고 1. 社會를革新할 事, 1. 世界에 知識을 廣求할 事, 1. 健全한 思想으로 團結할 事, 1. 健康을 증진할 事, 1. 産業을 振興할 事, 1. 世界文化에 공헌할 事 등

의 강령을 채택하고, 1920년 12월 2일에 창립총회를 가졌다. 강령에서 보듯이 이 聯合會는 사상운동체라기보다 종래의 地方團體들이 일반적으로 추구했던 知·德·體의 三育함양과 社會改造운동의 범주를 넘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聯合會에는 全國에서 116개의 청년단체가 가입했으며, 그 간부들은 「勞動共濟會」와 중복되어 있었다. 그런 가운데 1922년 1월의 金允植의 社會葬問題에 대한 의견대립끝에 내분을 일으키게 되어, 사회장에 반대하였던 社會主義者들은 1922년 3월 1일부터 6일까지 열렸던 제3회대회를 계기로 서울靑年會와 이에 동조했던 18개 지방단체가 탈피했다.

(2) 「서울靑年會」(1921년 1월 27일 창립)

「서울靑年會」는 李得季, 金翰, 洪璿植, 金思國, 李英, 張德秀, 金明植, 吳祥根, 韓愼教, 尹滋蕓 등이 중심되어 조직된 서울에서 조직된 최초의 청년단체였다. 이 단체는 창립 당시 思想運動團體는 아니었다. 주로 民族主義的 성격이 강한 인사들이 주축이된 단체였으나 그 가운데 社會主義者들이 있었다. 그러나 「서울靑年會」는 이른바 詐欺共產黨事件과 金允植의 社會葬문제를 계기로 金思國, 金翰, 李英 등의 社會主義者들에게 장악당하였다. 그후 서울靑年會는 思想·靑年·勞農組織에 주력하게 되며, 共產主義운동과 黨의 조직에 있어 北風會와 火曜會에 대립하여 주도권 쟁탈투쟁을 전개했다.

(3) 「全朝鮮靑年黨大會」(1923년 3월 24일~30일)

「서울靑年會」는 1922년 4월에 강령을 “역사적 진화의 필연인 新社會의 건설을 목표하여 돌진한다. 또 계급적 자각과 단결로서 無產大衆解放運動의 전위임을 期한다”로 고치고 1923년 3월에 全朝鮮靑年黨大會를 개최했다. 이大會의 제3분과 안전토의에서 “東亞日報는 스스로 민족의 意思表現기관임을 선언하고서도 近來의 동향은 全的으로 資產層의 옹호에 주력하고 있으니 우리는 同紙가 민족의 의사표현기관임을 취소하고 현 간부의 충사직에 이르기까지 非買同盟하고 성토선전에 힘쓸 것”을 결의했다.

이 「全朝鮮青年黨大會」의 각 분과위 결의내용을 보면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宗教存在의 근본적 부인, 노동 및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자본주의체제(私有財産制度)의 근본적 부정, 민족·사회문제에 있어서는 당시 민족운동의 상징이었던 物産獎勵와 民主大學건립운동의 타도, 東亞日報의 非買運動과 성토, 青年會발전문제에 있어서는 계급투쟁의 노선 채택 등으로 급진좌경의 길을 선택했다. 그들 결의안 가운데는 민족독립운동은 벌써 필요가 없는 일이라고 선언하고 그대신 계급투쟁이어야 한다는 社會革命戰線과 국제무산자계급과의 동맹을 내세운 것이 있었다는 것은 크게 주목할 대목이라 하겠다.

(4) 「新興青年同盟」(1924년 2월 11일 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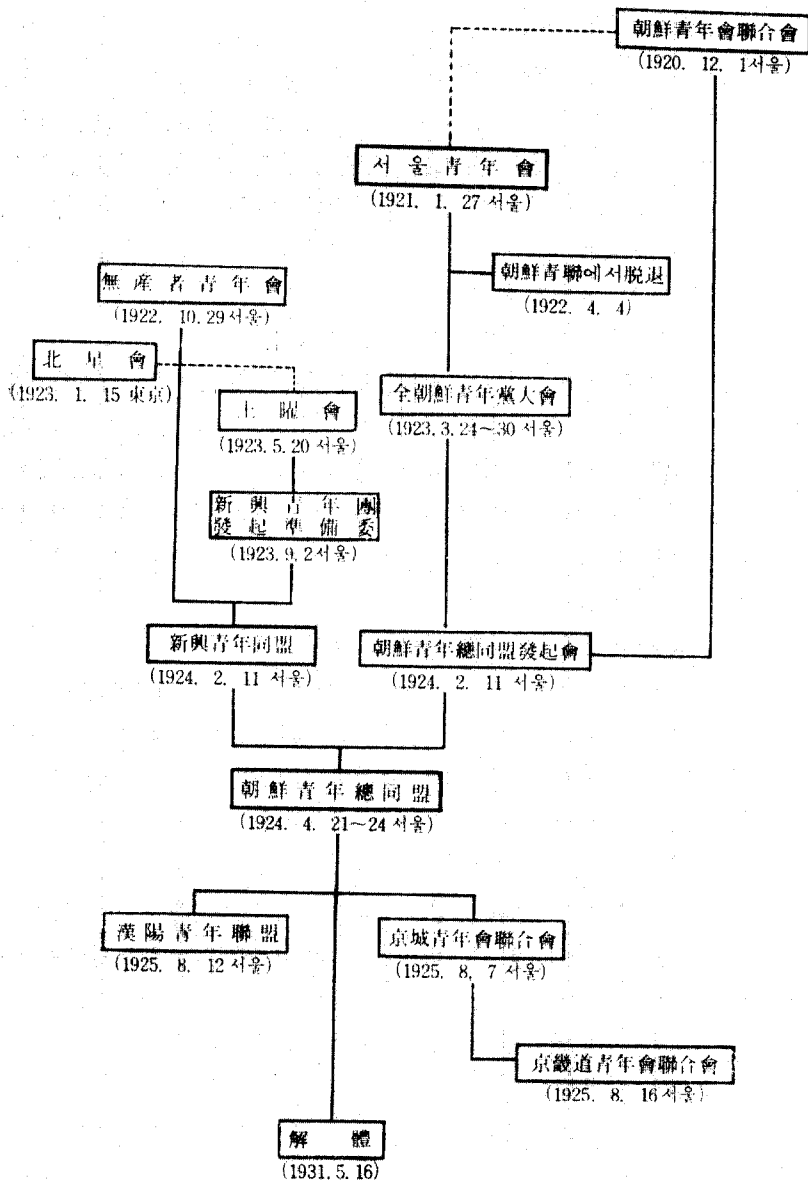
이 同盟은 土曜會, 朝鮮勞動聯盟會, 新思想研究會(火曜會)系가 합류하여 「無產者만의 青年團體」를 발기한 조직으로 「서울青年會」系에 대항하는 단체였다. 이 단체는 1. 本 同盟은 사회진화의 법칙에 의거하여 新社會건설자의 훈련과 양성을 期함. 1. 本 同盟은 계급의식의 각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계적 無產青年의 수양기관설치를 期함을 강령으로 채택했다. 朴憲永, 金丹治, 林元根 등이 「新興青年同盟」에 가담하였으며, 이들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朝鮮青年總同盟」을 거쳐 「高麗共產青年會」를 조직하게 된다.

(5) 「朝鮮青年總同盟」(1924년 4월 21일 창립)

1924년 2월 11일에 「朝鮮青年總同盟발기준비위」를 개최하고 1. 大衆本位인 新社會의 건설을 기도하고, 1. 조선민중해방운동의 선구자되기를 기약한다는 강령을 채택하고 4월 21일에 창립총회를 열었다. 이 總同盟에는 서울青年會의 합동제청에 호응하여 新興青年同盟도 발기단체로 가입했다. 「朝鮮青年總同盟」은 全國 6백여개의 각종 청년단체 가운데서 朝鮮青年會聯合會, 서울青年會, 新興青年同盟산하의 250여단체를 同一理念과 同一기치아래 결속시켜 社會主義路線의 조직을 결성한 것으로 韓國青年運動史上 또는 社會運動史上 획기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로서 韓國의 좌익운동은 이 同盟이 영도하게 되었다.

〈表 6〉

青年運動團體 一覽表



이 밖의 각종청년단체와 그것들의 제보를 나타내는 것이 <표 6>이다.⁵⁾
라. 女性運動

3·1 운동 이후 女性運動團體는 1921년에 15개, 1922년에 29개였다. 1922년까지 여성단체들의 운동은 대체로 非革命的 계몽주의노선, 자유주의적 사상경향, 인도주의적 여권운동 등에 초점을 모았다. 이른바 “사회진화의 법칙에 의거한 新社會건설과 女性解放運動”은 1923년말경부터 등장한 새로운 여성단체들에 의해 전개된다. 이같은 좌익운동여성단체 가운데 주요한 단체는 다음과 같다.

(1) 「朝鮮女性同友會」(1924년 5월 23일 창립)

이 단체는 최초의 여성사회운동단체로서 朝鮮女子苦學生相助會의 鄭鍾鳴, 崔聖三과 朴元熙(金思國의 처), 朱世竹(朴憲永의 처), 許貞淑(林元根의 처) 등이 합세하여 조직하였다. 이 同友會의 강령은 1. 本會는 사회진화법칙에 의거하여 新社會의 건설과 여성해방운동에 균할 일존의 양성과 훈련을 期하고, 1. 本會는 조선여성해방운동에 참가할 여성의 단결을 期할 것으로 되어있다.

(2) 「京城女子青年同盟」(1925년 1월 21일 창립)

이 女子青年同盟은 사실상 朴憲永, 林元根 등의 女子共產青年조직으로 1. 無產階級女子青年의 투쟁적 모양과 조직적 훈련을 期하고, 1. 무산계급여자청년의 단결력과 상부상조의 조직력으로 여성의 해방을 期하고 당면의 이익을 위하여 투쟁한다는 강령을 내세웠다.

(3) 「京城女子青年會」(1925년 2월 21일 창립)

이 女子青年會는 서울青年會系로서 京城女子青年同盟의 대항조직으로 1. 우리는 부인의 독립, 1. 자유를 확보하고 모성보호와 남녀평등권인 사회제도의 실현을 期하고, 1. 우리는 부인해방에 관한 사회과학상의 교양을 천명하고 그 보급을 도모한다는 강령을 채택했다.

이상과 같은 각종운동 이외의 성격이 조금 다른 「衡平運動」이 있다. 이

5) 앞의 책, p.148에서 引用

운동은 1923년 4월 25일에 晉州에서 「衡平社」를 창립하므로써 시작된 白丁계급의 계급타파운동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생략키로 한다.

2. 朝鮮共產黨의 태동

1922년 12월에 코민테른極東總局所屬 「포르부로」(高麗局)가 설치되었다. 이 기구는 해외의 上海派 및 이르크즈크派 高麗共產黨의 해체에 대처하여 韓國內에 朝鮮共產黨을 조직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탄생한 것이었다. 그리고 「포르부로」國內部の 형성에 있어 창시자적 역할을 한 자는 金燦(金洛俊)이었다. 金燦은 1923년 4월에 入國하여 朝鮮共產黨 조직을 위한 제반 기반조성사업에 착수했다. 때를 같이하여 1923년 4월에 辛容箕(辛鐵)과 1923년 5월에 金在鳳 등이 속속 入國하여 金燦일당과 함께 「포르부로」國內部 창설에 착수한다. 그러던 가운데 1923년 6월에 이르러 서울靑年會系를 제외한 火曜會, 北風會 간부들이 金燦의 집에 모여 「포르부로」國內部를 조직했으며, 이를 다시 黨과 共靑으로 양분하여 黨은 金在鳳을 책임비서로, 共產靑年會는 辛鐵을 책임비서로 인선했다. 서울에서는 時代日報를 비롯한 8개의 黨야체이카(細胞)를 지방에서는 新義州를 비롯한 10개소에 각각 1개씩의 黨야체이카를 확보하는 데 성공한다. 이 때 주목되는 것은 時代日報와 朝鮮日報에 黨야체이카를 조직한 점이라 하겠다. 時代日報 야체이카 책임자는 洪南杓로 당원 4~5명, 朝鮮日報 야체이카 책임자는 金在鳳으로 당원 6~7명을 확보했다. 이같은 야체이카는 共產主義運動에 있어 주요 언론기관을 선전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조직활동을 통하여 동지획득과 당원양성에 주력하는 동시에 훈련된 당원들로 하여금 당정책의 수행을 위한 각종 표현기관의 설립과 지도임무를 담당케 했다. 예컨대 1923년 7월에 新思想研究會(火曜會系)를 설립하였고 同年 9월에는 全國無產團體의 통일을 기도하여 北星會로 하여금 그 임무를 담당케 한 것 등이다. 北星會로 하여금 각지에 散在하는 勞

農團體를 결합하여 朝鮮勞農總同盟을 결성케 하였으며, 한편 京城無產青年會와 土曜會를 발전적으로 해체시킨 토대위에 新興青年同盟을 조직케 하고 나서 서울青年會를 중심으로 하는 朝鮮青年總同盟결성에 참여케 함으로써 좌익운동의 전국적 통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한편 金思國은 자신이 영도하고 있던 서울青年會를 중심으로 서울黨(서울공그룹)을 조직했다. 金은 귀국한 뒤 1924년 4월 이후 地下黨(서울공그룹) 조직에 착수하여 마침내 1924년 10월에 자신을 책임비서로하는 朝鮮共產黨을 결성했던 것이다. 이를 세칭 「서울黨」 또는 「서울공그룹」이라고 부른다. 이에서 미루어 알 수 있듯이 共產黨의 조직을 둘러싸고 각파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그 양상을 도표화한 것이 <표 7>과 <표 8>이다.⁶⁾

<表 7>

年度系統	1924	1925	1926
火曜會 및 北風會系	火曜會(新思想研究會改稱) 北風會(北星會系 單一組織) 朝鮮勞動黨(創設當時는 北星會系 및 서울青年會系로 混成 對立하여 있었지만 後에 北風會에 加擔) 京城青年會 建設社(後에 研文社) 解放運動社	京城動勞聯盟 서울印刷職工青年同盟 京城女子青年同盟 漢陽青年聯盟 仁川青年聯盟 朝鮮學生科學研究會 開城青年聯盟 四團體合同委員會	京畿道青年聯盟 新人同盟 正友會(元 四團體合同委)
서울青年會系	勞動學友會 朝鮮勞動敎育會 京城勞動青年會 赤靑團 社會主義者同盟	朝鮮無產者青年會 朝鮮女子青年會 前進會 中央勞動青年會 京城學生聯盟 京城青年聯合會 京畿道青年聯合會	朝鮮新聞配連組合總同盟 朝鮮印刷職工總聯盟 朝鮮鐵工總同盟

6) <표 7>은 앞의 책, p. 224에서, <표 8>은 p. 225에서 引用

〈表 8〉

火曜會 및 北風會系		서울靑年會系	
靑年團體	13	靑年團體	11
女性團體	1	女性團體	2
職工勞動組合	4	學生團體	2
其 他	8	職工勞動團體	6
		其 他	1

3. 朝鮮共產黨의 창당과 종언

가. 第1次 朝鮮共產黨의 결성과 붕괴

1925년 4월 17일 金在鳳, 金燦, 金料佺(金若水), 朱鍾建, 尹德炳, 陳秉基, 趙東祐, 曹奉岩, 宋奉瑬, 金尙珠, 俞鎮熙, 獨孤佺 등 12인이 모여 비밀결사인 朝鮮共產黨을 결당했다. 일설에 의하면 이밖에 鄭雲海, 崔元澤, 李鳳洙, 金基洙, 申東浩, 朴憲永, 洪惠裕 등도 참가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7인의 중앙집행위원으로 金若水, 金燦, 俞鎮熙, 朱鍾建, 趙東祐, 鄭雲海, 金在鳳 등을 인선하고, 책임비서에 金在鳳이 선임되었다. 이를 第1次黨 혹은 金在鳳黨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결성된 第1次黨은 1925년 5월 7일에 발표된 治安維持法에 의한 日帝의 좌익운동에 대한 탄압이 가중됨에 따라 표면적인 활동은 하지 못하고 교묘한 지하운동을 통해 조직의 확대 등을 꾀했다. 그러던 가운데 1925년 11월에 일어난 이른바 新義州事件으로 인해 비밀결사가 탄로나 당간부들이 대거 검거되거나 해외로 탈출함으로써 붕괴되었다.

나. 第2次 朝鮮共產黨의 결성과 붕괴

新義州事件後 경찰의 추적을 모면하고 아직 체포되지 않았던 당책임비서 金在鳳과 중앙집행위원 金燦, 朱鍾建 등이 1925년 12월 15일 회합을 갖고 후계당의 조직을 논의했다. 이들은 당시 朝鮮日報 晉州支局長이었던 姜達永을 上京시켜 그로 하여금 후계당을 조직케 한다. 그리하여 1925년 12월 하순에 당대회는 열지않고 중앙당간부진을 구성했다. 이것을 第2次

黨 또는 姜達永黨이라 부른다. 그 다음 해인 1926년 2월 중순에 姜達永(책임비서), 李準泰, 李鳳洙, 金綴洙, 洪南杓 등으로 5인 중앙집행위원회를 구성했고, 후에 權五高, 金政瑄을 추가하여 7인 중앙집행위원회가 되었다. 이들은 서울에 9개의 야채이가를 두었는데 그 가운데 第1區 제 3야채이가는 朝鮮日報內에 두고 책임자에 洪惠裕, 당원에 姜達永, 李承燁, 趙鏞周, 李鳳洙를 확보했으며, 第2區 第4야채이가는 時代日報에 두고 책임자에 具然欽, 당원에 朴純秉, 具昌會, 柳淵和, 洪南杓, 李敏行 등이었다. 또 姜達永黨은 日本 東京, 上海, 沿海州에 연락부를, 滿州에 滿州部 등 해외조직을 두었다. 그러나 이 第2次黨도 6·10 만세사건으로 당의 조직이 日帝경찰에 포착됨으로써 全國적으로 1백여명의 관여자가 체포되는 것을 계기로 붕괴되고 말았다.

이상과 같은 第1次 및 第2次黨의 결성과 붕괴과정에서 한가지 주목되는 점은 언론계에 침투한 공산주의조직이라 할 수 있다. 즉 第1次黨의 결성에 있어 朴憲永, 林元根이 東亞日報代表로, 金丹治, 洪培植이 朝鮮日報代表로, 曹判煥이 時代日報代表로 참여했으며, 第2次黨 결성때에는 姜達永을 비롯해 李鳳洙(東亞日報 經濟部長, 포르투로國內부의 최초 5인간 부중 1인), 洪南杓(時代日報 業務局長) 등의 언론사간부들이 참여했다. 또한 第1次黨과 第2次黨에 대한 일제검거로 『경찰에 체포되었던 언론관계자수는 모두 83명에 이르며, 그 자세한 내용은 <표 9>와 같다.’⁷⁾

다. 第3次黨의 결성과 붕괴

第2次黨이 붕괴된 뒤인 1927년, 2차사건 때 검거를 간신히 모면하여 만주로 피신하였던 李東輝의 제자이며 國內上海派 지도자인 金철수가 高光洙, 金剛, 李仁秀, 韓彬 등 舊上海派를 대표하는 당원들과 함께 서울로 돌아왔다. 그는 一月會의 지도자들과 새로운 연합당의 결성을 위한 회의를 시작했다. 이 회의는 一月會의 주도 아래 새로운 연합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준비하였다. 이 때 연합은 이정윤이 이끄는 서울파의 일부(소

7) 앞의 책, p. 447에서 재인용

〈表 9〉

朝鮮共產黨事件言論關係者數

新聞雜誌名	第1次事件 (新義州)	第2次事件 (鍾路署檢舉)	小計	備 考
東亞日報	3	5	8	檢舉當時 在社하였던 者만을 舉함
朝鮮日報	7	23	30	"
時代日報	1	15	16	"
解放運動	6	4	10	1925年 4月 記者大會當時의 者를 舉함. 現在廢刊하지 않고 있음
新興青年	6	7	13	同
朝鮮之光	0	2	2	檢舉當時 在社하였던 者만을 舉함
其 他	0	4	4	鉛友 2, 烟群 1. 갈등 1.
計	23	60	83	

資料：京城地方法院檢事局「第二次 朝鮮共產黨事件檢舉－關スル報告綴」p. 189.

장파), 안광천의 一月會(北風會를 계승하여 日本에서 귀국한 유학생들), 그리고 김철수가 이끄는 만주에서 돌아온 舊上海派의 일부(일명 M.L. 파) 등 3개파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1927년 2월 서울에서 第3次黨을 결성했다. 이를 M.L. 黨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第3次黨은 거의 활동을 하지 못했으며, 내부의 파벌투쟁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간부들의 불화가 공공연하게 표출되어 경찰의 감시와 검거를 불러일으켰다. 1927년 11월 수명의 당원이 검거된 뒤를 이어 1928년 2월 2일 32명의 간부와 당원이 대량 검거됨으로써 붕괴되었다.

라. 第4次黨의 결성과 붕괴

第3次黨이 와해된지 1개월도 안된 1928년 2월 27일, 국내와 日本, 滿州를 대표하는 12명의 대표가 M.L. 파의 주도권아래 第4次黨을 결성하기 위해 모였다. 3월중순에 제1차 집행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위원들은 車今奉을 당서기로 선출했고, 第4次黨의 결성모임에서 이정윤이 上海에서 가져온 코민테른의 결정서에 대해 토론했던 바, 이 문서는 統一戰線問題에 대해 서울파의 李英과 대립하고 있던 M.L. 파의 입장을 인정하면서 韓國共產主義者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여러 파벌을 통합하고, 新幹會에

서 레계모니를 장악하는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第4次黨의 국내 활동의 초점은 新幹會에 있었고, 한위건은 新幹會에 공산주의세력을 재건하였다. 그들은 거의 모든 新幹會의 주요 支部에 세포를 설치하였고, 서울支部의 대부분은 회원을 조종하였다. 그리하여 1928년말에 이르러서는 新幹會內의 민족주의자의 주도권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으며, 新幹會의 여성조직인 槿友會에도 역시 공산주의자들이 침투해 있었다. 그러던 중 1928년 6월 19일 당기관지 「朝鮮之光」을 경영하던 중앙집행위원 이성태가 검거되고, 7월 5일에는 한명찬과 다른 몇명의 집행위원이 검거되는 일을 시작으로 1928년 10월 5일까지 175여명의 당원들이 검거되면서 第4次黨은 붕괴되고 말았다. 이들 M.L. 黨사건이라고도 부른다.

마. 第5次黨결성 움직임

滿州에서 1929년 1월에 朝鮮共產黨再建準備委員會를 만들어 위원장직을 맡고 있던 김철수는 1930년 1월에 20여명의 당원을 이끌고 서울에 돌아왔다. 이들의 당재건작업은 勞·農組織에서 진전이 있었지만 김철수가 1930년 3월에 체포될 때까지 黨이 조직되었던 같지는 않다. 黨재건 지도자들은 확고한 黨조직없이 노동자의 파업과 小作爭議를 일으키기 위해 농민과 노동자 속에 침투하여 활약했다. 1931년 3월 23일 김철수는 좌익 노동조합평의회 준비회를 결성하고 노동쟁의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였다. 그러나 김철수는 노동쟁의의 지도에는 뛰어난 진전을 이룩했으나 黨을 재건하는 데 실패했다. 1931년 서울에서 개최된 메이데이 데모로 인해 108여명의 평의회준비위원들이 검거됨으로써 第5次黨 결성시도는 무산되고 말았다.

바. 第6次黨결성 움직임

김철수 등의 朝鮮共產黨再建準備委의 실패를 본 한위건은 上海에 있는 그의 동지들을 규합하여 國內에 黨을 재건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한다. 그는 黨재건공작을 위해 밀사들을 서울에 파견했으며, 밀사들은 1931년 2월 27일 회합을 갖고 黨재건을 토의했다. 이 회합에서 농민, 노동자조직

과 함께 村단위로 시작되는 작은 세포를 부활시킬 것을 의결하였다. 이 회의의 결과로 朝鮮共產黨再建設同盟이 權大衡을 위원장으로 창설되었다. 이 명칭은 1931년 4월 10일 제 2차회의에서 朝鮮共產黨協議會로 바뀌었다. 협의회는 기관지로 월간 「코뮤니스트」, 주간 「烽火」를 발행키로 했다. 그런 가운데 「코뮤니스트」가 발간되어 검거가 시작되어 權大衡과 지방조직의 대다수 지도자들이 1932년 4월 大田에서 체포되었다. 이것이 韓國에서 民族的인 次元으로의 朝鮮共產黨 復活을 위한 共產主義者들의 최후의 조직적인 노력이었다. 1930년대의 韓國內에서의 韓國共產主義者の 활동은 國外에서의 共產主義者の 활동에 비해 소규모였으며, 黨재건을 위한 계속적인 시도가 모두 실패한 것이었다.

IV. 研究 結果

1. 연도별 게재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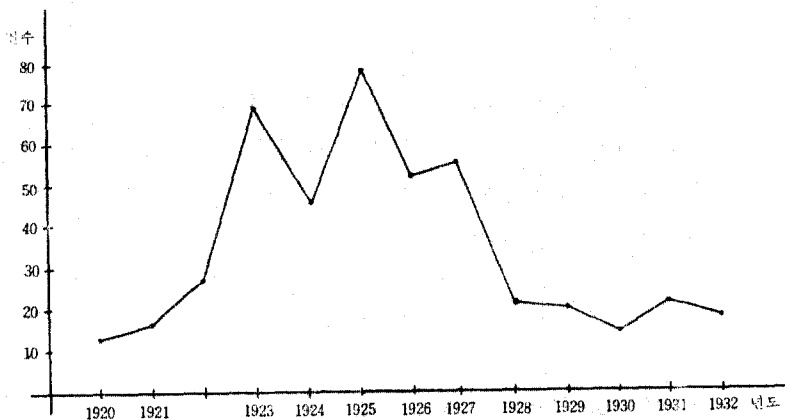
東亞日報와 朝鮮日報에 실린 共產主義관계 論評·社說·解說·企劃物 등의 게재건수는 1920년에서 1932년까지 모두 4백 50건에 이른다. 연평균 약 35건씩 게재된 셈이다. <표 10>을 보면 가장 많이 게재되었던 연도는 1925년으로 모두 79건이 게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년간의 게재된 건수의 추세를 보면 1923년에서 1927년에 이르는 5년간에 집중적으로 많이 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1928년 이후에는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게재건수를 신문별로 분석해 본 것이 <표 11>이다. 이를 보면 東亞日報에 게재된 총 기사수는 154건이며, 朝鮮日報은 모두 296건이다. 이와같이 朝鮮日報가 東亞日報에 비해 거의 2배정도 더 많은 共產主義관계 논·사설 등을 게재한 것으로 나타난 까닭은 당시 두 신문의 이데올로기 지향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東亞日報은 右派民族主義를 지향한 데 반해 朝鮮日報은 左派民族主義를 표방했던 것이다. 따라서

〈表 10〉

年度別 掲載件數

연 도	19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계
건 수	12	16	27	69	46	79	52	54	21	20	14	21	19	450
비율(%)	2.7	3.6	6.0	15.3	10.2	17.6	11.6	12.0	4.7	4.4	3.1	4.7	4.2	100.0



〈表 11〉

新聞別 掲載件數

(%)

신문	연도	1920	21	22	23	24	25	26
동 아 일 보		12 (7.8)	6 (3.9)	20 (12.9)	28 (18.2)	21 (13.6)	22 (14.3)	13 (8.4)
조 선 일 보		—	10 (3.4)	7 (2.4)	41 (13.8)	25 (8.4)	57 (19.3)	39 (13.2)
계		12 (2.7)	16 (3.6)	27 (6.0)	69 (15.3)	46 (10.2)	79 (17.6)	52 (11.6)
신문	연도	27	28	29	30	31	32	계
동 아 일 보		10 (6.5)	3 (1.9)	8 (5.2)	3 (1.9)	5 (3.2)	3 (1.9)	154 (100.0)
조 선 일 보		44 (14.9)	18 (6.1)	12 (4.1)	11 (3.7)	16 (5.4)	16 (5.4)	296 (100.0)
계		54 (12.0)	21 (4.7)	20 (4.4)	14 (3.1)	21 (4.7)	19 (4.2)	450 (100.0)

朝鮮日報가 社會主義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이와함께 앞의 共產主義運動略史에서 보듯이 朝鮮日報에는 朝鮮共產黨이 결성되는 과정에서 야세포(細胞)가 조직되어 있었고, 또 <표 9>에 나타나 있듯이 第1,2次黨사건 때 검거된 인원수도 他新聞에 비해 월등히 많듯이 新聞社內에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침투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시기의 朝鮮日報은 공공연하게 社會主義新聞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또한 <표 11>을 보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東亞日報의 경우 게재건수가 많았던 기간은 1922년에서 1925년 사이이며, 朝鮮日報은 1925년에서 1927년 사이로 나타났다. 이것은 東亞日報가 朝鮮共產黨의 결성 이전의 思想運動, 靑年運動 등이 활발하게 전개된 시기에 주로 공산주의관계 논·사설을 게재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며, 朝鮮日報은 상대적인 의미에서 黨결성 이후에 그같은 경향을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朝鮮日報의 경우 이러한 경향을 보인 이유로 新幹會의 조직과 결부시켜 볼 수도 있겠다. 朝鮮日報을 중심으로 한 左派民族主義者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新幹會가 결성되었으며, 朝鮮日報은 그에 따라 新幹會의 기관지 구실을 했었기 때문이다. 新幹會는 1927년 1월 14일에 정식 발족된 民族統一戰線조직이며, 창설될 때까지 朝鮮日報가 그 산파역을 담당했던 것이다.

2. 필진분석

당시 東亞日報와 朝鮮日報에 실렸던 共產主義관계 記名 논·사설 등의 필진 가운데 신문사의 논설반(위원)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들의 명단은 <표 12>와 같다. 그러나 이 명단은 접근 가능한 자료라는 한계내에서 확인한 것이므로 완전한 것은 아니다. 논설반소속이 아닌 평기자의 명단은 <표 12>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각 신문에 실린 記名 논·사설등의 필자를 연도별로 정리한 것이 <표 13>과 <표 14>이다. 朝鮮日報의 경우 필자의 수가 많은 이유는 그만큼 共產主義관계 논·사설 등이 많이 게재되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表 12〉

新聞別論·社說筆陣

新聞	職位	姓名	在任期間	관련사회운동단체
동아일보	主筆	張德秀 洪命喜 宋鎮禹 金俊淵	1920. 4~1923. 4 1924. 5~1925. 4 1925. 4~1927. 10 1935. 3~1936. 8	서울청년회 화요회 ML 계 조선공산당
	論說班	李相協 張德俊 秦學文 金明植 朴一乘 金良洙 鄭寅普 尹洪烈 李鳳洙 趙東祐 崔元淳 咸尙勲 朱耀翰	1920. 4~1924. 4 1920. 4~1920. 11 1920. 4~1920. 6 1920. 4~1921. 2 1920. 4~1920. 4 1922. 10~1924. 5 1924. 5~1924. 8 1924. 5~1926. 11 1924. 4~1924. 9 1924. 5~1925. 5 1925. 8~1927. 3 1929. 5~1933. 9 1929. 12~1930. 11	서울청년회 화요회 상해파 고려공산당 화요회
조선일보	主筆	安在鴻 辛日鎔	1924. 9~1928. 9 1932. 6~1933. 6	ML 계 조선공산당
	論說委員	安在鴻 金俊淵 辛日鎔	1924. 9~미상 1924. 9~미상 1924. 9~1924. 9	

註 8) 東亞日報社, 「東亞日報社史 卷一」, 서울 1975, pp. 413~415 및 韓國新聞編輯人協會, 「新聞百年人物事典」 서울, 1988, pp. 1072~1099 에서 재구성

이들 표에서 보듯이 山川均, 堺利彥 등의 日本 共產主義運動의 주도적 인물의 글들이 실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표 15〉는 記名 논·사설 등을 2편 이상 집필한 필자들의 명단이다. 이들 가운데서 林和의 집필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은 카프運動과 관련된 글을 많이 집필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며, 뒤에서 보듯이 1925년 이후 문화와 관련된 주제가 가장 많이 게재되었다는 것과도 연관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表 13〉

東亞日報의 筆障(기명논사설의 경우)

연 도	필 진(전수)
1920	俞鎮熙(2) 廉尙燮(1) 鐵民生(1) 如是觀(1) 趙 宇(1) 雙眼中啞子(1) 金佑杵(1)
1921	柳友槿(1) 卞熙琿(1)
1922	李順鐸(2) 金俊淵(1) 晚悟生(1)
1923	李星泰(1) 朱鍾建(1) 羅公民(1) 姜宅鎮(1) 尹嶺南(1) 辛泰嶽(2) 南農(2) 鮮于全(2) 洪利杓(1) 崔昌益(1)
1924	고리끼(1) 韓愼教(1)
1925	赤城山人(1) 山川均(1) 一民生(1)
1926	裊成龍(2) 星山學人(1)
1927	乎千生(1) 金泳植(1) 韓雪野(1) 廉想涉(1)
1928	三角山人(1)
1929	金章煥(1) 金東進(1) 金基錫(1) 金潤兩(1) 咸尙勲(1)
1930	李之輝(1) 朴完植(1) 咸大勲(1)
1931	朴英熙(1)

〈表 14〉

朝鮮日報의 筆障(기명 논·사설의 경우)

연 도	필 진(전수)
1921	樂園生(1) 文 慶(1) 宋根雨(1)
1922	張 喆(1)
1923	鄭在旭(1) 黃痴生(1) 張赤波(2) 權錫珪(1) 裊成龍(2) 金相哲(1) 楊子江(2) 鄭春溪(1) 鄭斗股(1) 新 島(1) 康永源(1) 李鍾模(1) 山川均(1)
1924	日 塘(1) 曹秉喆(1) 擧利彥(1) 크라라셋트킨(1) 虛 堂(1) 辛日鎔(1)
1925	鄭 栢(1) 辛日鎔(1) 崔 柱(1) 朴元熙(2) 金俊淵(2) 朴英熙(1) 中西伊之助(1)
1926	高津正道(1) 卞熙琿(1) 金俊淵(2)
1927	燕京校人(1) 朴英熙(1) 廉想涉(1) 安光泉(1) 朴春宇(1) 辛一星(1) 柳子明(1) 朴元熙(1) 梁 明(1) 布施長浩(1) 林 和(1) 姜鐵九(1)
1928	李晟煥(1) 權泰錫(1) 朴英熙(1) 張日星(1) 金萬圭(1) 崔益翰(1) 崔益煥(1)
1929	裊成龍(1) 한 별(1) 李如星(1)
1930	宋駝麟(1) 金亨俊(1)
1931	李貞根(1) 野 牛(1) 陳尙珠(1)
1932	金明植(1) 林 和(10) 一步生(1) 咸大勲(1) 李灌鎔(1) 吳三峰(1)

〈表 15〉 主要筆陣(기명 논·사설의 경우)(게재편수가 2건 이상인 경우)

이 름	건 수	이 름	건 수	이 름	건 수
林 和	11	卞 熙 璫	2	廉 想 涉	3
金 俊 淵	5	李 順 鐸	2	張 赤 波	2
裴 成 龍	5	辛 泰 嶽	2	楊 子 江	2
朴 英 熙	4	許 榘	2	崔 益 翰	2
俞 鎮 熙	3	鮮 于 全	2	咸 大 勲	2
朴 元 熙	3	辛 日 鎔	2	山 川 均	2

이상과 같은 記名 논·사설 필자들의 共產主義運動團體 소속계열을 밝힌 것이 〈표 16〉이다. 이 표에 따르면 서울靑年會系와 M.L. 派 계열의 필

〈表 16〉 筆陣들의 당시 社會主義運動 關聯分類(기명 논·사설의 경우)

운동단체명	관 련 필 진(건수)
서울청년회	朴元熙(3) 鄭 栢(1) 崔昌益(1) 韓愼教(1) 姜宅鎮(1) 金明植(1)
북 풍 회	卞熙璫(2) 李如星(1)
화 요 회	裴成龍(5)
상 해 파 고려공산당	朱鍾建(1)
화 요 회 조선공산당	俞鎮熙(2)
ML 계 조선공산당	金俊淵(5) 梁明(1) 安光泉(1) 崔益翰(2) 權泰錫(1) 晚悟生(1)
카 프	朴英熙(4) 林和(11) 韓雪野(1)

자들이 가장 많이 신문들에 글을 게재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같은 필자들의 소속계보를 연도별로 분석해 본 것이 〈표 17〉이다. 〈표 17〉을 보면 필자들의 소속계보별 빈도수에 있어 1920년~1924년 사이의 5년간은 별다른 특징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1925년~1929년간에서는 서울靑年會系와 M.L. 派系 및 카프運動者들이 많은 집필을 한 것으로 보이며, 1930년 이후에는 카프運動者들만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1930년 이후, 즉 1931년의 만주사변과 함께 日帝의 사상운동에 대한 탄압이 더욱 심해졌기 때

〈表 17〉 筆障의 社會主義運動관련성에 따른 年度別 分類(5년단위)
(기명 논·사설의 경우)

운동단체 \ 연도	1920~1924	1925~1929	1930~1932	계
서 울 청 년 회	3	5		8
북 풍 회	1	2		3
화 요 회	2	3		5
상해파 고려 공산당	1			1
화요회계조선공산당	2			2
ML 계 조선공산당	2	9		11
카 프		5	11	16
계	11	24	11	46

문에 문학운동만이 신문에 게재될 수 있었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를 다시 신문별 소속계열로 분석해 보면 〈표 18〉과 같다. 〈표 18〉을

〈表 18〉 筆障의 社會主義運動관련성에 따른 新聞別 分類
(기명 논·사설의 경우)

운동단체 \ 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계
서 울 청 년 회	3	5	8
북 풍 회	1	2	3
화 요 회	2	3	5
상해파 고려 공산당	1		1
화요회계조선공산당	2		2
ML 계 조선공산당	2	9	11
카 프	2	14	16
계	13	33	46

보면 東亞日報의 경우에는 특징적 경향이 들어나지 않고 있으나, 朝鮮日報에 있어서는 M.L. 派系와 카프運動系 필자가 월등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그 당시 朝鮮日報의 共產主義관계 논·사설의 게재건수가 1925년 이후 東亞日報보다 월등히 많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생

각된다. 즉 1925년 이후 M.L. 派系와 카프運動系의 필자가 많이 등장했으며, 이 시기에 朝鮮日報가 東亞日報보다 몇배가 많은 共產主義관계 논·사설을 게재했던 것이다. 이같은 해석은 <표 19>로 미루어 보더라도 근거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즉 <표 19>를 보면 5년간격의 연도별 記名 논·사설의 필자수는 朝鮮日報의 경우 1925년 이후 東亞日報에서 보다 2배내지 5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다.

<表 19> 新聞에 따른 筆陣의 연도별 分類(기명 논·사설의 경우)

신문 \ 연도	1920~1924	1925~1929	1930~1932	계
동 아 일 보	32	17	4	53
조 선 일 보	27	39	21	87
계	56	56	25	140

<表 20> 年度別 기명·무기명 논·사설의 件數比較

연 도	19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계
기 명	8	6	6	31	8	12	8	18	10	8	6	4	15	140
무 기 명	4	10	21	38	38	67	44	36	11	12	8	17	4	310

참고로 두 신문에 실린 논·사설 등 기사의 記名·無記名 게재건수를 분석해 본 것이 <표 20>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記名기사건수는 약 31%이며, 無記名기사건수는 69%에 해당된다. 이와같이 無記名기사건수가 월등하게 많은 까닭은 언론검열때문이었거나, 또는 외국필자들의 글을 번역하여 게재한 경우가 많았던데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主題分析

두 신문에 실린 共產主義관계 논·사설 등의 주제를 분석해 본 결과 총 게재種數 가운데서 共產主義運動論이 약 4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문화론 약 13%, 노동문제 약 11%, 共產主義(社會主義)소개 약 11%의 순

〈表 21〉

主題別 分類

주 제	유물론	변증법	해결철학	유물사관	노동문제	계급론
건 수	2	1	1	5	49	40
비 율(%)	0.5	0.2	0.2	1.2	11.4	9.3
주 제	문화론	자본주의 분	사회주의 공산주의 개	운동론	기 타	계
건 수	56	10	45	183	58	450
비 율(%)	13.0	2.3	10.5	42.5	13.1	100.0

〈表 22〉

主題에 따른 年度別 件數(5년 단위)

(%)

주제	연도	1920~1924	1925~1929	1930~1932	계
유물론		2(1.2)			2(0.5)
변증법		1(0.6)			1(0.2)
해결철학				1(1.9)	1(0.2)
유물사관		5(2.9)			5(1.2)
노동문제		20(11.8)	20(8.8)	9(16.7)	49(11.4)
계급론		25(14.7)	14(6.2)	1(1.9)	40(9.3)
문화론		13(7.6)	36(15.9)	7(12.9)	56(13.0)
자본주의 분석		9(5.3)	1(0.4)		10(2.3)
사회주의·공산주의 소개		20(11.8)	23(10.2)	2(3.7)	45(10.5)
운동론		60(35.3)	111(49.1)	12(22.2)	183(42.5)
기타		15(8.8)	21(9.3)	22(40.7)	58(13.1)
계		170(100.0)	226(100.0)	54(100.0)	450(100.0)

위로 나타났다(〈표 21〉참조). 이를 다시 연도별로 분석해 본 것이 〈표 22〉이다. 이에 따르면 1920년~1924년간에는 共產主義運動論이 약 35%로 가장 많이 게재되었고, 다음으로 계급론이 약 15%, 노동문제와 共產主義(社會主義)소개가 각각 약 12%의 순으로 실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1925년~1929년의 기간 중에는 共產主義運動論이 약 4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문화론이 약 16%, 共產主義 소개가 약 10%로 밝혀졌다. 또 1930년 이후를 보면 共產主義運動論이 약 22%로 가장 많고 다

음이 노동문제 약 17%, 문화론 약 13%의 순이다. 이 시기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기타가 약 41%로 어느 시기에서 보다 게재비율이 높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분석결과를 놓고 볼 때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즉 1925년~1929년 사이에 共產主義運動論이 어느 시기에서 보다, 또 같은 기간내에 게재된 어느 주제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은 비밀결사였지만 朝鮮共產黨의 조직활동이 왕성하였다는 것과 연관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1925년 이후 문화론의 게재비율이 상승하게 되는 것은 카프의 신문에운동이 1924년부터 1934년에 이르는 10년간 왕성하게 전개되었었다는 점, 그리고 1925년의 保安法 발효이후 문화론은 사상검열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930년 이후 기타로 분류되는 글들이 많이 게재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日帝植民統治당국의 사상탄압과 勞農運動탄압 및 언론에 대한 검열의 강화를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신문별로 주제분석을 해 보면, 東亞日報의 경우 共產主義運動論이 37%로 가장 많이 게재되었고, 다음으로 문화론 약 16%, 노동문제 11%, 계급론 약 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朝鮮日報는 共產主義運動論이 약 43%로 역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共產主義(社會主義)소개가 약 11%, 노동문제 약 11%, 문화론 약 11%의 순으로 실렸다(〈표 23〉 참조).

이렇게 볼 때 東亞日報가 상대적으로 문화론을 더 많이 게재한 데 반해 朝鮮日報는 共產主義 소개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실었다는 차이를 알 수 있다. 이같은 차이는 물론 당시 두 신문의 이념적 토대를 반영하는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共產主義運動과 관련된 논·사설 등이 가장 많이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는 바, 이를 운동의 종류별로 분석한 것이 〈표 24〉이다. 이에 따르면 전체 183건의 기사 가운데 노동운동이 약 31%로 가

〈表 23〉

主題에 따른 新聞別 件數

(%)

주 제				동아일보	조선일보	계
유	물	론			2(0.7)	2(0.5)
변	증	법		1(0.6)		1(0.2)
해	결	철	학		1(0.3)	1(0.2)
유	물	사	관	2(1.3)	3(1.0)	5(1.2)
노	동	문	제	17(11.0)	32(10.8)	49(11.4)
계	급	론		15(9.7)	25(8.4)	40(9.3)
문	화	론		25(16.2)	31(10.5)	56(13.0)
자	본	주	의	5(3.2)	5(1.7)	10(2.3)
사	회	주	의	12(7.8)	33(11.1)	45(10.5)
운	동	론		57(37.0)	126(42.6)	183(42.5)
기		타		20(12.8)	38(12.8)	58(13.1)
계				154(100.0)	296(100.0)	430(100.0)

〈表 24

運動의 分類(운동론의 경우)

운동의 종류	공산당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여성운동	문예운동	청년운동
건 수	18	56	28	1	3	7
비 율(%)	9.8	30.6	15.3	0.5	1.6	3.8
운동의 종류	학생운동	민중운동	혁 명	일반사회운동	기 타	계
건 수	1	10	10	44	5	183
비 율(%)	0.5	5.5	5.5	24.0	2.8	100.0

장 많이 게재되었으며, 다음으로 일반사회운동 24%, 농민운동 약 15%, 共産黨運動 약 10%의 순으로 실렸다. 이를 다시 연도별로 분석해 보면 1920년~1924년간에는 노동운동이 약 3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일반사회운동 약 20%, 농민운동 약 15%의 순으로 나타났고, 1925년~1929년 사이에는 일반사회운동이 약 2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노동운동이 약 27%, 共産黨運動이 약 14%, 그리고 농민운동 약 13%의 순이었다. 1930년대 이후에는 운동론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표 25〉참조).

이같은 연도별 운동론의 종류분석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

〈表 25〉 運動論의 종류에 따른 年度別 件數(5년 단위) (%)

운 동 연 도	1920~1924	1925~1929	1930~1932	계
공 산 당 운 동	2(3.4)	16(14.3)		18(9.8)
노 동 운 동	21(35.6)	30(26.8)	5	56(30.6)
농 민 운 동	9(15.3)	14(12.5)	5	28(15.3)
여 성 운 동	1(1.7)			1(0.5)
문 예 운 동	1(1.7)	1(0.8)	1	3(1.6)
청 년 운 동	4(6.8)	3(2.7)		7(3.8)
학 생 운 동	1(1.7)			1(0.5)
민 중 운 동	4(6.8)	6(5.4)		10(5.5)
혁 명	3(5.0)	7(6.3)		10(5.5)
일 반 사 회 운 동	12(20.3)	31(27.7)	1	44(24.0)
기 타	1(1.7)	4(3.6)		5(2.8)
계	59(100.0)	112(100.0)	12	183(100.0)

할 수 있겠다. 즉 1920년~1924년의 기간동안 보다 1925년~1929년 사이에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에 대한 게재건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대신 일반사회운동론이 증가된 것은 역시 1925년의 保安法시행으로 노동·농민운동에 대한 탄압과 검열이 강화된 것을 반영하는 것이며, 1925년~1929년간에 共産黨운동에 관한 기사가 증가된 것은 이 기간중의 朝鮮共産黨의 결성과 연결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또한 1930년 이후 운동론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현상은 31년의 만주사변으로부터 日帝의 탄압과 언론통제가 가증된 결과일 것이다.

한편 이 당시에 두 신문에 실린 共産主義運動論이 일반론에 머물렀는지 아니면 구체론(실천론)이었는지를 분석해 본 결과, 일반론이 약 54%, 구체론(실천론)이 약 46%로서 일반론이 약간 더 많았다(〈표 26〉참조). 이 같은 분석결과를 다시 연도별로 보면 1920년~1924년 사이에는 일반론이 약 42%, 구체론(실천론)이 약 58%로 오히려 구체론이 더 많았던 데 반해 1925년~1929년간에는 그와 반대로 일반론이 약 60%, 구체론(실천론)이 약 40%로 나타났다(〈표 27〉참조). 이것은 앞에서 말한 保安法의 영향

〈表 26〉

運動의 性格에 따른 분류

운동의 성격	일 반 론	구체적 case	계
전 수	98	85	183
비 율(%)	53.6	46.4	100.0

〈表 27〉

運動의 性格에 따른 年度別 分類(5년 단위)

(%)

운동의 성격 \ 연 도	1920~1924	1925~1929	1930~1932	계
일 반 론	25(42.4)	67(59.8)	6	98(53.6)
구 체 적 case	34(57.6)	45(40.2)	6	85(46.4)
계	59(100.0)	112(100.0)	12	183(100.0)

〈表 28〉

運動의 性格에 따른 新聞別 分類

(%)

운동의 성격 \ 신 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계
일 반 론	32(57.1)	66(51.9)	98(53.6)
구 체 적 case	24(42.9)	61(49.1)	85(46.4)
계	56(100.0)	127(100.0)	183(100.0)

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신문별로 분석해 보면 東亞日報의 경우는 일반론이 약 57%, 구체론(실천론)이 약 43%인데 비해, 朝鮮日報은 일반론 약 52%, 구체론(실천론)이 약 49%였다(〈표 28〉참조). 큰 차이는 없으나 朝鮮日報가 東亞日報보다 구체론을 좀 더 많이 게재했다.

그런데 이 시기의 신문을 보면 운동론을 게재함에 있어 외국의 사례들을 자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국가별 소개 비율을 알아 본 결과 韓國을 제외한 경우 中國・日本・歐美의 운동론이 주로 소개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29〉참조). 이를 다시 연도별로 분석해 보면 1925년~1929년 사이에 외국에서 전개된 운동론의 소개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신문별로 보면 東亞日報 보다 朝鮮日報가 더 적극적으로 외국의 운동사례를 게재한 것으로 밝혀졌다(〈표 30〉과 〈표 31〉 참조).

〈表 29〉

運動의 소개대상국가

운 소 개 국 가	동 가	소 련	중 국	일 본	일 반 세 계 공 산 국가	구 미	한 국	계
전 수		3	10	8	1	6	85	113
비 율(%)		0.3	8.8	7.1	0.1	5.3	75.4	100.0

〈表 30〉

年度別 運動의 소개대상국가(5년 단위)

연 도		1920~1924	1925~1929	1930~1932	계
국 가					
소	련	1	2	—	3
중	국	—	10	—	10
일	본	1	7	—	8
일	반	1	—	—	1
공	산	2	4	—	6
국	가	33	45	7	85
구	미				
한	국				
계		38	68	7	113

〈表 31〉

新聞別 運動의 소개대상 국가

국가		소 련	중 국	일 본	일 반 세 계 공 산 국가	구 미	한 국	계
신문								
동	아	2	—	1	1	—	31	35
조	선	1	10	7	—	6	54	78

V. 결 론

누구나 인정하고 있듯이 1920년대는 어떤 이데올로기 보다 共產主義(社會主義)가 우리 사회에 본격적으로 受容되었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비단 理念 그 자체의 知的 受容뿐만 아니라 하나의 광범위한 실천 운동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되는 것이다. 그 시대 이후 1945년의 조국분단으로 北韓에 共產主義政權이 수립된 상황을 제외하고는 1920년대만큼 知的 論爭으로나 혹은 실천운동으로써 共產主義가 활발하게 受容되는 경험은 역사에 없었다. 따라서 앞에서 분석해 본 바와 같이 이 시

대의 대표적 신문들인 東亞日報과 朝鮮日報가 共產主義를 受容함에 있어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놀라울 만큼 적극적이었다는 점은 오히려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本研究가 計量分析方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상적인 현상의 진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지만, 몇가지 경향만은 알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것을 앞의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신문의 共產主義의 受容은 신문이 추구했던 理念, 신문경영의 주체, 자본의 성격 및 언론인들의 성향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났다. 즉 地主資本과 보수적 右派民族主義者들이 지배했던 東亞日報보다 광업자본과 左派民族主義者들이 우세했던 朝鮮日報가 보다 적극적으로 共產主義를 受容한 것이다. 특히 朝鮮日報의 경우 朝鮮共產黨의 조직 초창기부터 黨야체이가가 확보된 뒤 비밀결사로 공산당원들이나 그에 동조하는 분자들이 많이 침투해 있었다는 점도 이 신문의 共產主義 受容에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두 신문의 共產主義의 受容은 두가지 측면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1920년 이후의 제반 共產主義 사상운동, 勞農運動, 靑年運動, 여성운동 및 朝鮮共產黨의 수차례에 걸친 결성과 붕괴과정 이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며, 나머지 하나는 1925년의 保安法 시행, 1931년의 만주사변 등을 계기로 日帝의 사상탄압, 共產主義運動에 대한 탄압 및 언론통제정책이 역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측면이다. 이것은 앞의 量的 分析에서 연도별 추이를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셋째, 共產主義관계 논·사설의 경우 記名 보다 無記名으로 게재된 건수가 2배정도 더 많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사설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외국인의 글을 번역하여 실었거나 또는 日帝의 사상탄압과 언론통제로 인해 신분의 노출을 꺼렸던 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記名기사의 경우에도 本名이 아닌 필명

을 쓰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그 결과 신문들의 공산주의 수용에 있어 운동주체의 계보별 분석이 정확할 수 없는 한계를 초래하게 되었다.

〈參考資料〉

시기별(년·월) 각 신문의 게재건수*

년월	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계
1920년 4월		3		3
5		3		3
6		1		1
7		4		4
8		1		1
1921년 1월			1	1
3		1		1
4		2	1	3
5			1	1
6		1		1
9			5	5
11		1		1
12		1	2	3
1922년 1월		1		1
2		2		2
4		1		1
5		1		1
6		3		3
7		6		6
8		2		2
9		1		1
10		2		2
11		1		1
12			7	7
1923년 1월		2	6	8
2		1	1	2

년월	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계
1923년 3월		2	1	3
4		7	1	8
5		3		3
6			4	4
7		4	7	11
8		1	8	9
9		5	1	6
10			4	4
11		2	6	8
12		1	2	3
1924년 1월		6	4	10
2		1		1
3		1		1
4		3	3	6
5		2	5	7
6			1	1
7			5	5
8		3	2	5
9		1	2	3
10		1		1
11		1	2	3
12		2	1	3
1925년 1월		3	13	16
2		3	7	10
3		3	9	12
4		2	6	8

* 개별 기사목록은 東亞研究 第7輯(1986.3)과 第9輯(1986.10)에 게재된 劉載天, 日帝下 韓國新聞의 共產主義受容에 관한 研究, (其一)과 (其二)를 참고할 것.

신문 년월	동아일보	조선일보	계
1925년 5월	4	6	10
6	3	3	6
7		6	6
8	1	2	3
9		2	2
11	2		2
12	1	3	4
1926년 1월	5	4	9
2		4	4
3		4	4
4		1	1
5		7	7
6	1	5	6
7	1	6	7
8		3	3
10	1		1
11	4	1	5
12	1	4	5
1927년 1월	1	9	10
2	1	2	3
3		3	3
4	2	5	7
5	1	6	7
6		1	1
7	2	1	3
8	1	2	3
9		5	5
10	1	2	3
11	1	6	7
12		2	2
1928년 1월	1	9	10
2		2	2
5		1	1
7	2		2
9		1	1

신문 년월	동아일보	조선일보	계
1928년 10월			1
11		2	2
12		2	2
1929년 1월	2	2	4
2	1	4	5
3	1	1	2
4		1	1
5	1		1
6	1	1	2
9		1	1
10		2	2
11	1		1
12	1		1
1930년 1월	2	3	5
2		1	1
4		3	3
5		1	1
9		1	1
11	1	2	3
1931년 1월	1	4	5
2	1	1	2
3		1	1
4		1	1
5	1	5	6
6	1	1	2
7	1	2	3
8		1	1
1932년 1월	3	1	4
2	1	1	2
3	3		3
4	1		1
5	1	1	2
7	2		2
11	2		2
12	3		3